

“두 개 언어로 나의 꿈 자유롭게 표현”...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최

광주시교육청, 재능발전 지속 지원
수상자 3명 전국대회 시대표로 참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4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내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0회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는 부모나 언어와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대회다. 다문화학생의 자존감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번째를 맞았다.



초등부 금상 수상자 서유민 학생은 “금상을 수상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뜻밖에 좋은 결과를 맞게 되어 정말 기쁘고, 전국대회에서 광주를 대표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등부 금상을 수상한 간지력 야루나 학생은 “금상을 수상한 것도 기쁘지만, 여러 학생들의 꿈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다”며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 나라 말과,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초등 서유민 학생, 중등 간지력 야루나 학생과 더불어 추가로 선발된

영천중 3학년 리아툼 학생(소수언어 참가자 중 최고 점자) 총 3명은 오는 11월 5일 교육부가 개최하는 '제10회 이중언어말하기 전국대회'에 광주시교육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시교육청 고인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 나라 언어와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페스티벌서 상담서비스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하영자)는 최근 '2022 광주광역시 청소년상페스티벌'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스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했다.



‘2022년 광주광역시 청소년상페스티벌’은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든 놀이 문화를 통해 세대 간의 교류와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를 제공하는 행사다.

센터는 행사에서 '고민 스티커 붙이고 비즈 반지 만들자(사진)' 부스를 통해 상담기관 서비스 참여를 독려했다.

부스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된 고민이 적힌 판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각각의 고민이 스티커를 붙인 다음 비즈반지를 직접 만드는 활

동을 진행했다.

센터는 추후 프로그램 개발 시 이번 청소년 고민판을 반영해 기획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조선이공대, 전남아동복지협회에 자립 청년 위한 컴퓨터 전달



조선이공대(총장 조순계)는 21일 대학 프레젠테이션실에서 '자립준비 청년 지원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남아동복지협회에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컴퓨터 20대를 전달했다. <조선이공대 제공>

문예위, 2개 기관과 사회공헌 협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는 최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송재식)와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영)와 함께 환경보호 가치 확산 및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약을 서면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세대의 환경 감수성을 증진하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환경보호 가치 확산과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 및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규철 광주교도소장 취임



최규철(사진)제66대 광주교도소장이 26일 취임했다. 최 소장은 이날 별도로 취임식을 하지 않고 각 부서장을 찾아 직원들과 인사물을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

김동현 광주교정청장 취임



제38대광주지방교정청장에 김동현(56·사진) 전 법무원 수원 교정연수부장이 취임했다. 김 청장은 “변화를 향한 믿음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을

구현하도록 교정시설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김 청장은 한국외대에서 문학사를 전공했고 연세대 법학석사와 한양대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1998년 공직에 입문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법무부 보안과장, 인천구치소장, 법무원 수원 교정연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갔다.

최 소장은 일선 기관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광주교도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장흥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인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 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오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꾸러기 식사교실(재)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KBS네트워크특선 언니랑 솔레 30 영성앨범 산(재)	00 법대로 사랑하라(재)	15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45 프렌즈세 바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영화가 좋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안방 우리말 2022 05 동행(재)	00 KBS 뉴스타임 1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호적메이트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남도스럽게 스페셜(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20 닥터 365 25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토740	50 황금가면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오라차차 내 인생	30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50 법대로 사랑하라	00 호적메이트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3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오케이! 오케이!	30 100분토론	30 싱 포 골드(재)
[12]	10 KBS결착 다큐멘터리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꿀쟁이 영화가 좋다(재)	55 TV예술무대	40 니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돌아공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08:00 덩덩뚱 유치원 08:20 로보가 폴리 08:35 동그리슴의 버네사 08:50 띠띠뽀 띠띠뽀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09:20 빅블루 09:35 타타와 쿠마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3:50 EBS 다큐프라임 14:45 비웃는 사람들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16:40 덩덩뚱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7일(음 9월 2일 癸未)** ☎ 010-9790-8237

36년생 갈수록 그 의미가 희석되어갈 것이다. 48년생 자율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60년생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72년생 누적된 모순이 병폐로 드러나리라. 84년생 대체적인 흐름은 양호하나 작은 결함들도 보인다. 96년생 바람직한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51

37년생 활발적인 변수가 많음을 감안하자. 49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61년생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속이라도 편하리라. 73년생 심오하고 미묘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입지에 놓인다. 85년생 두루 살펴가며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97년생 참으로 값진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73

38년생 애태우면서까지 함께할 이유가 없다. 50년생 잘 알아보고 써야만 부작용이 없다. 62년생 요령을 보인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다. 74년생 단단히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86년생 제약을 따를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98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7, 65

39년생 천천히 실행되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51년생 숙련은 연쇄적인 폐단으로 이어지지 않아 있다. 63년생 바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느니라. 75년생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87년생 철저하게 살핀다면 방안이 보이리라. 99년생 누락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61

40년생 즉시 조치했을 때 부작용을 줄인다. 52년생 활용 여부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달라진다. 64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76년생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88년생 짜임새 있는 설계가 발전적인 판도를 기약한다. 00년생 파헤치는 것보다는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8, 77

41년생 대동소이하니 한꺼번에 처리해도 된다. 53년생 지난날의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야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65년생 단일한 형태가 효율성을 제고시키리라. 77년생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 역시 점점 커질 것이나. 89년생 큰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자. 01년생 망실될 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하라. 행운의 숫자 : 10, 74

42년생 과욕한다면 필히 근심이 생기리라. 54년생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게 되는 양태이다. 66년생 과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날게 하리라. 78년생 경미하다면 대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90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02년생 본인이 예상해 왔던 바에 틀림없이 적용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82

43년생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55년생 거슬러다려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67년생 털어서 먼저 나오지 않는 이 없을 것이나 너무 따져려 들지 마라. 79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될 것이다. 91년생 무심코 방지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03년생 지장을 줄 수도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5, 95

44년생 한계를 벗어날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56년생 활로를 열어 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68년생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절실한 문제가 보인다. 80년생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92년생 변수가 생겨날 만유가 생기리라. 04년생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치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도다. 행운의 숫자 : 06, 88

33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45년생 지금 도모하지 않는다면 침체하게 된다. 57년생 끝까지 가까이 전에는 속단하지 마라. 69년생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일취월장할 수 있다. 81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93년생 필요에 따라서는 연이년이 될 수도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0, 84

34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알고 조심하라. 46년생 지나치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임에 밝다. 58년생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할 요청된다. 70년생 완화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할 만한 여유가 생기리라. 82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94년생 만족할 만한 결과이다. 행운의 숫자 : 26, 97

35년생 소금 팔러 나가려나 비가 내리는 이치이다. 47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어 실망하는 판도이다. 59년생 주어진 국면에 적절해야만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계획이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83년생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백번 낫다. 95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8, 92